

#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 □ 회의개요

- 일 시: 2023. 1. 30.(월) 11:00~
- 장 소: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
- 보고사항:
  - 1. 전차 총회 서면결의 결과 보고
  - 2.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
- 심의안건:
  - 1.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 2. 제11대 임원 추가 선임 권한 위임(안) 심의

## □ 개회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여해 주신 대의원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출석확인)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회의 시작 전, 참석하신 대의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테니스협회 황성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테니스협회 문경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봉명중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테니스협회 김봉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테니스협회 이종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도자협의회 유지곤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판위원회 최현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수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원홍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 1. 성원보고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재적대의원 14명중 8명 참석으로 본 협회 규약 제18조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 2. 개회선언 >

○ 회장 주원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 3. 회장인사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새로 취임하신 전라북도장애인테니스협회 김봉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못하고 또 얼굴 보기도 참 힘든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앞으로 실내 마스크도 이제 벗을 예정이라서 다행히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간, 기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겨우 저희가 늘 치르던 국제대회 세계를 치를 수 있었고 또 장애인체전도 치렀고, 또 두 개 정도 국내 대회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4월부터 코리아오픈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여러 대의원님들을 자주 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반갑고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올해 코리아오픈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한 6천만 원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자체 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임원회의를 했는데 많은 임원들께서도 올해는 자체

예산 증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대의원총회 심의 안건 작년의 결산과 또 올해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많은 좋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4. 보고사항 >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1호 전차총회 서면결의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 ○ 회장 주원홍

회순에 따라 전차 총회 서면 결의 결과를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대의원총회는 ‘22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면결의로 개최되었으며, 재적대의원 14명 전원 회신하여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전차 총회 서면결의 결과」,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보고 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으로 「정기대의원총회 서면 의결」,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본회 단체회원 탈퇴 승인(안)」, 「규약 일부 개정(안)」, 「제11대 임원 추가 선임(안) 권한 위임」 등 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 회장 주원홍

초록에 잘못 기록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사들 있음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2호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회순에 따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안전자료 4쪽과, 5-21쪽의 <별첨 1, 2> ‘2023년도 사업계획(안)’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단위사업별 위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 받는 가맹단체 운영 운영지원은 협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지원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제시리즈대회 기금 예산은 부산, 대구, 서울 대회에 전년 수준으로 반영되었고, 서울 코리아오픈 시비는 주원홍 협회장님께서 서울시의회에 요청하여 예산 증액이라는 어려운 일을 이끌어 내주셔서 올해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대회 개최지원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상시훈련 사업은 월급제 지도자 감독, 코치 두 명의 급여 지급 개월 수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2,100만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국가대표 국제대회 참가지원 사업은 전년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신인선수 훈련지원 사업 또한 전년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전임지도자 배치 사업은 신인우수선수 발굴 및 순회지도 등의 내용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심판제도 사업으로 종전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계약기간에 대하여 400만원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전문인력양성 사업 및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쪽의 <별첨 2> ‘2023년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기금 92,300만원, 시비/지방비 15,780만원, 자체예산 1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시비예산은 2022년도 시비예산 9,000만원 대비 67%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본 협회에서 직접 개최하는 서울 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사업비 6,0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별 증액 및 감액은 앞서 사업계획안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회장 주원홍

네. 사무국장이 '23년도 우리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고 사업계획 및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대비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차후 변동이 있을시 이사회 의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 선수위원장

23년도 사업 예산 표를 보니까요. 그 항목 중에 국내대회 개최라고 예산 잡힌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 머 기준을 두고 있나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 하시는 건지?

○ 김영철 선수위원장

어디 어디를 주겠다. 예산을 쓰겠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금 시도 지부별로 그 공모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공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 중앙협회에 제출하면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1, 2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 김영철 선수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냐 면요. 이게 아직 물론 확정을 해갖고 어디서 이 부분에서 이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는 지금 그 제 개인적인 선수 입장으로서 대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네.

○ 김영철 선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50%라든지 해 갖고 일정 부분은 선수 위원장 배라든지 해 갖고 매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경기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서 그 장소도 없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충주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충주시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 갖고 같이 지금까지는 시니어 대회를 위해서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500 정도 예산을 좀 고정적으로 지원을.. 보시면 매년 경기 하나를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경로 회장

제가 답변을 드릴 저기는 아닌데 이 돈이 천오백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방비하고 돈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게 대구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대구에서 협회에서 내리는 돈 1천만원 플러스 대구에서 쓸 돈을 5천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에서 5천만원짜리 시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선수위원회에서 이걸 하려면 만약에 충주를 해서 하려면 충청북도 아니면 충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충청 그 충청북도 장애인 테니스 협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대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만약에..

그게 지금 없어져서 시니어대회 겸 같이 하겠다 하면 인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천장애인테니스협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지방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젠...

○ 김영철 선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 선수협의회에서는 이제 매년 지금 코로나로 몇 년째 못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경기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1월 달쯤에 미리 선수협의회에서 신청을 하

게 되면 우선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기금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내려오는데 요 국내 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는 전문 엘리트 체육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고 시도 지부에서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가맹단체 지부..

○ 김영철 선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선수위원회 경기는 돌아가면서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네.

○ 김영철 선수위원장

매년 한 번은 대회도 있는데 이 대회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매년 한 지역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한 12월쯤에 국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우선권을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부산에다가 협의를 해야겠죠.

선수위원회에서 해 갖고 통과가 되면은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방법적으로 그렇게 선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개최 시도인 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협회를 통해서 그 협회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공모에 신청을 하시고 아까 우리 인천광역시장에 인테니스협회 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 기금만 가지고도 할 수 없고 지방비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자부담이 일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되시면 선수위원회에서 일부 자부담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시도시부에서 네.네.네. 그거는 이제 개최 시도하고 일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울림이나 뭐 이런 동호 어울림 생활체

육 대회로는 할 수는 없고 전문 엘리트 스포츠로 해서 저희 작년에 대구 부산에서 진행했었던 그런 방식의 대회로 개최를 하셔야 됩니다.

○ 김영철 선수위원장  
네.

○ 문경로 회장

저기 선수협의회 김 회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어울림을 하려면은 차라리 여기 앞에 계신 주원홍 회장님한테 선수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금을 이렇게 마련했으니 협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 시도를 돌아가는 시작을 하나를 만들어 드립시다. 이렇게 지금 건의드리는데 그래야지 기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게 지금 나중이라도 이사회 때 이게 또 대의원 총회 때 대한 저기를 또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지금 제가 건의하는 것보다는 회장님께서 선수협회에서 협의회에서 회장님한테 건의해서 선수협의회에서 일 년에 하나씩 이렇게 이런 지방을 돌면서 하는데 중앙협회에서 좀 지원 좀 예산 지원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 김영철 선수위원장  
감사합니다.

○ 회장 주원홍

선수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동호인대회나 어울림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트대회가 아니고? 아이쥬아요.

○ 김영철 선수위원장

아닙니다. 어울림대회가 아니라 선수들 전체가 참여하는...

○ 회장 주원홍

전체가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동호인 포함해서..

○ 김영철 선수위원장

동호인 안하고요..

○ 회장 주원홍



그러면 선수만 하는 거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 김영철 선수위원장

기존의 시니어대회를 바꾸는 거예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방법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제 50 이상인가 해서 아마 시니어 대회로 이제 선수위원회 회비로 해 갖고..

○ 회장 주원홍

오픈 대회를 해 보겠다는 거잖아.. 선수가 참여하는 엘리트 오픈대회 국내 오픈대회..

○ 김영철 선수위원장

일반 선수들..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 선수들...

○ 회장 주원홍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머 지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예산이 있고 협조가 가능한 시도부터 먼저 컨택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은데 선수위원회가

이 중앙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비 보조가 있는데 이걸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협의가 되면은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이제 상황을 보고 아. 이거는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 선정해서 저희 예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겠죠.

○ 김영철 선수위원장

그래서 오늘 회장님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한 3월 중순쯤에 해 갖고 이제 그동안에 못 했으니까 모든 선수들이 모이게 해서 지금 충주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회장 주원홍

충주?

○ 김영철 선수위원장

네네. 이제 충주에서 이제 김건훈 부위원장이 충주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예산을 받으면 일정 부분 우리 선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우리가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충주에서는 하는데.. 체육회에서 일정부분 우리가 예산을 올린 거 안 된 부분을 조금 아까도 예산에서 지원을 지금 올해 3월 초, 중순쯤에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회장 주원홍

하여튼 그거는 협회하고 굉장히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는 거고 그게 도저히 법으로 안 되거나 예산의 범위가 너무 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철 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김봉수 회장

이거 기타토의 사항이 또 따로...?

○ 문경로 회장

네. 마지막에...

○ 회장 주원홍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보고의 건은 원안 접수를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5. 안전심의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다음의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1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심의 안건 제1호인 2022년도 사업결과 결산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2022년도 행정 및 회계감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행정감사님과 성상환 회계감사님께서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간략하게 감사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회 행정감사는 23년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종운 행정감사님이 3일간 진행하셨으며, 회계감사는 23년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성상환 회계감사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회의 자료 24쪽부터 28쪽에 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개최 등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완화로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전국체전 등의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며 2022년도 결산 결과 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재원별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내용을 잘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회장 주원홍

바쁜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지만 22년도 행정 및 회계에 대해서 세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내용에 대해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회 규약 제49조 제50조에 의거 20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사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23쪽과 29에서 44쪽에 별첨 1 2022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미개최 등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3개 국내 대회 2개 개최 및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선수들에게 대회 참여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와 시도 지구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사업 또한 올해는 정상적인 훈련 일정 소화와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하여 선수들의 실력 점검과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및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협회 사무국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장님의 후원 유치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협회 사업 운영에 노력한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2021년 가맹단체 평가에서 30개 종목별 경기단체 평가 결과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서 94.1점으로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여 직원 3명의 600만 원의 상여금과 400만 원의 협회 행정운영비를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인 2022년도 사업결과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주요 사업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결산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2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세부 감사 의견은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자료 33에서 45쪽에 '22년도 결산으로 수입·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총 예산은 1,295,770,219원으로 기금 915,172,000원, 이월금 26,798,219원, 보조금예산 98,600,000원, 자체예산 255,200,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및 보조금 지원 예산, 자체예산은 연초 추산액으로 편성함에 따라 수입액과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22년도 최종 1,102,754,846원의 수입 중 1,095,479,495원을 지출하여 15,482,627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고 18,590,943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액 비율은 수입액 대비 1.8% 수준입니다.

이월액 15,482,627원은 자체예산에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반납액 18,590,943원은 기금 17,928,609원, 지방비 662,334원으로 기금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제한, 지방비 부분은 국제대회 상금 지급 환율차액 등으로 불가피한 집행 잔액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도 사업비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추진한 우리 장애인테니스협회 사업 결과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정 심판위원장

경기단체 평가 2등 했어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네.

○ 최현정 심판위원장

작년도?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네. 21년도 평가를 22년도에 하고 22년도 평가는 지금 이제 진행해서 2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 최현정 심판위원장

잘 몰라가지고.. 몰랐었어요..

○ 회장 주원홍

사무국이 잘해가지고...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회장님 많이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 회장 주원홍

보너스 주는 건 몰랐네.. 보너스도 줬나?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네. 지정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됐었던 모양인데요.

올해는 좀 바뀌어서 상여금 200만 원씩 해서 직원 세 명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인데 그렇게 600만 원 하고 400만 원은 이제 협회 행정운영비로...

○ 회장 주원홍

잘했네. 그렇게 지정해서 주는 건...

○ 최현정 심판위원장

직원들 3분 다 여기 있는데 박수라도 쳐 드리지요..

(박수 짹짹)

○ 회장 주원홍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회장님께서 심의 안건 제2호를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심의 안건 제2호인 제11대 임원 추가 선임 권한 위임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라 본 협회 규약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 제2항 제2호의 임원 수 증가에 따른 제11대 집행부 임원의 원활한 추가 구성을 위하여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며 위임 기한은 차기 총회까지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회장 주원홍

사무국장이 제11대 집행부 임원 추가 선임 권한 위임 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로 회장

대의원 이거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지금 임원 수 말씀대로 임원 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구성하게 되면

○ 문경로 회장

그러니까 이게. 위임하는 게 차기 전이니까 만약에 중간에..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그게 또 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임원 선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 문경로 회장

임시대의원총회를 또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 회장 주원홍

보시다시피 대의원 총회 한번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아직도 우리 지방의 대의원들도 구성이 안 된 협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힘듭니다. 여기 다 위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지방 회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돼서 불가피하게 이제 차후에 임원이 좀 필요에 따라서 선임되더라도 또 대의원총회에서 또 통해서 또 의결 받으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제 이런 의결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 김봉수 회장

지금 대의원이.. 지금 지방협회 대의원들은 참석률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 문경로 회장

총 대의원 수가 있어요 ....

○ 김봉수 회장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겠지만 사무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 또 여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스스로 여기를 꼭 참석 해야겠다는 우선순위에 가면은 뭐 아무리 멀어도 제주에서라도 오지 않겠어요.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이지.. 저야 이제 처음이니까...

○ 김영철 선수위원장

3년 3년 동안 했다가 있습니다만 모여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인원들인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야 하고 다 참석을 해 주시는 게 그런 면이 좀 아쉽, 아쉽네요. 선수 입장에서...

○ 회장 주원홍

네.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계속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얼굴 뵈는 일도 참 힘들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소통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면서 사무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또 오신다는 분들이 지금 또 갑자기 이제 머 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음번에는 회장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봉수 회장

이게 또 예산이나 이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번 총회의 내용인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감사께서 안 하시고 사무국장께서 애쓰셔서 이렇게 감사 보고를 대신하고..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테니스협회라고 해서 저는 지역 시골에 있지만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다음에 이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라고 와서 뭐 원안대로 다들 동의하고.. 오늘 처음. 출석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저기 하더라도 이해를 ..



○ 회장 주원홍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하실 말씀이고 저희들도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지방 협회들이 다 완성되지 않은 협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참여도가 조금 그동안에도 그렇게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늘 오는 사람만 오고 그래서... 저희 노력도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봉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빠지는 바람에 이게 좀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참고해서 다음 대의원 총회 때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 김봉수 회장

감사 선임은 어떻게? 감사 선임..

○ 회장 주원홍

감사 선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가 이제 사실 별도로 제가 요청을 해서 회계사를 추천을 하면 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었고 한 명은 행정감사는 이제 대의원 중에 한 분을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회장이 이제 추진하는 걸로

○ 김봉수 회장

알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이게 감사 임기가 언제까지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원래 감사분들은 2년인데요. 그럼 연임 가능해서.

..

○ 문경로 회장

회장님은 처음 저긴데... 나중에 시합장 가서 보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충북... 그 정도만 보이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름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기타 토의사항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전국체전 때는 시도협회 회장이나 최대한 부회장들 모여서 뭐

선수협의회 위원장으로 해서 한 번 정도 얼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 년 동안 못했거든요. 못 본데다가 그래서 올해는 이게 다 풀린다면은 시도 회장님들을 초청해서 보여야지 만이 아까 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하여튼 요 좀 극성 좀 열심히 열심히 해야 자주 뵙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여섯 개 시도 그런데 열네 개 이렇게 있어도 가서 뵙지를 못하겠어요. 시도 가서도 회장님이 나오시지 않으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 김영철 선수위원장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회장님 저기 시도협회 회장님한테 좀 건방진 표현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선수가 할 말 다 하잖아요.

○ 회장 주원홍

우리 문경로 대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회를 계속 열고 있는 시도 몇 군데하고 나머지는 뭐 진짜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참석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얼굴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이름은 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체전 기간이라도 한번.. 비장애인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번 얼굴 뵙고 여러 가지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연 총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삼 년 동안 거의 뭐 만나지도 못하고 작년에 체전은 열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아직 얼굴도 못 뵈 가지고.. ..조금 이 시도협회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요.

시도협회라는 게 존재 이유가 이게 선수가 있고 그래서 또 시도협회가 활성화돼서 좀 전수 지원도 하고 이런 게 좀 따라줘야 되는데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에는 협회가 또 이게 형성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협회뿐이 아니고 많은 장애인 협회들이 좀 숙제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봉수 회장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치고 앞으로 23년도부터는 저도 시골에 있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면은 마음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또 지도부에서도 살펴주시면...

○ 문경로 회장

저도.. 전북 회장님 처음 뵈어요. 오래 하긴 오래 했는데 시도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

○ 회장 주원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회를 맡아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협회에서 참 오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어요. 뭐 우리 이종훈 회장 정도 그다음 대구 대구 봤는데...

○ 김봉수 회장

제가 작년 7월에 지금 이런 저기 발언을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7월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공석으로 이제 한 동안 있었는데 제 사실은 제가 은태 목사입니다.

○ 회장 주원홍

아. 네.

○ 김봉수 회장

근데 그거를 선임하는데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이 안 되니까 공석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지인이 저에게 적합하다고 목사님 이걸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제가 이제 칠십까지만 해도 지역 비장애인 테니스대회도 하고 또 제가 구력이 한.. 정의균 회장도 잘 알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테니스, 테니스 장애인테니스 협회로 그렇게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히 장애인 전국 장애인테니스협회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발달 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많이 저변에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시각장애인 테니스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이거를 먼저 보니까.. 선수가 없어요. 뭐 대한민국 다 해봐야 한 100여 명 남짓 된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역시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을 좀 어떻게 해볼래도 선수도 좋고 뭐도 없는데 사실 입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시각 청각 다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뭐 어울림 아닌 각 부서별로 발달장애부서 그다음에 우리 휠체어 부서 그다음에 왜 청

각 시각 이렇게 장애인 부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축제 한마당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좀 봄을 일으키고 이런 거 좀 하고 언론도 좀 하고 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선수들 자체들 중심에 대한 회원들이 아무 비협조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들은 선수 딱 보면 선수 나가서 선수 기용 받고 출전을 받고 상 받으면 받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요즘 하고자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휠체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히고 피곤한 대로 말씀 하긴 했으니까 또 말씀 또 해도 될까요.

발달장애인들 수업 교실이 있어요. 한 12년간 쪽 해왔는데 금년에 갑자기 중단하겠단다. 그 그런 거예요. 우리 학부형들이 저한테 면담 간담회를 신청해가지고 학부형들 와서 이렇게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학부형들이 같이 와가지고 공을 잘치고 안 치고가 문제가 아니야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소통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간식 먹고 갖다 놓고 그런 게 얼마나 통합에 맞춰서 넘기고 하는 것이 그 박수치고 참 좋잖아요.

제가 가니까 인사하니까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 애들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도 체육회에 가가지고 또 시에 가고 왔다 갔다. 갔다. 다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내 이걸 내가 가만 안 있겠다. 해가지고 결국 부활을 해놨어요. 부하를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보니까 왜 거기서 예산을 하나면 지도자가 자격증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또 귀한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가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토의 있으면 자격증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가 좀 알아서 주변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 제도로 좀 참여를 시키고 또 아니면 안 되면 전화도 받고 나서 해서 이걸 해야지 자격증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온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 구해가지고 보조 보조도 하나 해서 지금 보완을 해놓고 예산도 또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나름 어려운 그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지도자 그런 과정을 저한테 좀 알려주고 주변에 저기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 김봉수 회장  
이상입니다.

○ 회장 주원홍  
그러면 집행부 임원 추가 선임에 관한 위임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겠습니다.

< “네.” 하는 대의원들 있음>

(의사봉 3타)

이제 준비된 심의 안건은 다 의결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는 준비된 안건 심의 기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타 토의는 식사하시면서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봉수 회장님 전라북도  
김봉수 회장님 처음.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  
해서 또 저희 협회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수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어 말씀하신 그 우리 선수들을  
위한 대회 하나 신설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 김봉수 회장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내용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성분 두 명을  
선수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고 훈련 받고 있거든요.

○ 회장 주원홍  
네.

○ 김봉수 회장  
저희들 참석해서 성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선수 중에 참여했고 휠체어가 없어  
지고 타 시도에 휠체어를 빌려 타고서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도에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선수가 도 대표인데 휠체가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선수가 이들이 그만큼  
이게 적다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현재 첫 도대표로 전국체전 나가는 대표

선수가 아무 데나 선수가 내가 서울에 가고 싶어 실리를 추측해가지고 서울에서 서울 선수로 가거나 다른 타 시도로 아무 저기 없이 갈 수 있나요. 그것 좀 알고 싶어요.

○ 회장 주원홍

그거는 아마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갈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직장이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직장이 구해져가지고 거기서 급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스카웃 돼서 보통 체전 때문에 이제 지역 협회에서 이제 잘하는 선수는 이제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뭐 스카우트 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테니스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선수가 체전에 참가할 정도의 선수가 되려면 굉장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선수가 시작 되면은 그 선수들이 아마도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봉수 회장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안전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비장애인들도 그 주소지별로 선수들이 참가하고 출전을 하거든요. 어떤 이 대의원 총회에서 그런 규정을 규례를 두어서 자기 주소지에서 선수를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지 선수들 전부 해봐야 전국적으로 해서 100여 명도 안 되고 좀 실력 지켜보다 보면 딱 봐서 좀 많은 그, 그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후원이 좋다든가 아니면 자기 저기 해가지고 이리저리 저기 하면 저희 같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이전 제 상식선과 다른 장애인 테니스의 경우는 또 예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그 어디 테니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출전을 딱 주소지에서 출전하죠.

○ 회장 주원홍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비장애인도 그렇고 모든 이제 규정은 이제 비장애인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그런 것도 결정하고 장애인 쪽은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팀이 소속이 되면 그 팀이 예를 들면 우리 팀은 농협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팀으로 출전하겠다. 그러면 그냥 주소 선수들 주소가 전라북도 아니더라도 그 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팀이 많진 않지만 예를 들면 스포츠토토 팀도 이제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경기도 팀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팀이 결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주소지에 있는 그 주소로 나가는 게 정상이지만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뭐 하다가 뭐 옮기고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가면 그 팀에 그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김봉수 회장

그러니까 이제 대회가 여러 대회가 종목별 대회가 테니스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그 계획에는 최소한의 전국 체전만은 전라북도 대표 서울 대표 구역으로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지않아요. 나뉘지는데 전라북도 거주지를 둔 선수는 전라북도에서 나가야 되고 지금 아까 회장님 말씀은 다른 일반 그 전국체전이 아닌 다른 데에서 나가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일반 교회 나갈 때도 다른 시도하고 폐해가지고 대회에 참여하거든요. 일반인들도 그건 이해하는데 전국체전만 이래도 우리가 도민체전 할 때도 각 시군 선수들을 확보해서 나가잖아요.

전국체전만이라도 주거지별로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필요를..

○ 회장 주원홍

전국체전이 제일 문제인 거죠.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개인들이 참가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체전을 참가하는 기준이 지금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관..

○ 김봉수 회장

그걸 우리가 해야죠.

○ 회장 주원홍

저희는 이제 모법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종목군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로 인 게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이게 팀이 예를 들면 뭐 주소지가 틀리더라도 팀이 결정을 하면 그 시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마음대로 장애인테니스협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범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선수들이 지방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가야 한다. 그런 규정이 꼭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저희가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에 정관에 따라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 김봉수 회장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의 정관은 대한테니스협회 정관에 거기에 준해서 법안이 됐다는 그런 건가요?

○ 회장 주원홍

아니죠.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똑같이 지금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도 예를 들면 실업팀이 연고를 연고라 그러는데 연고를 이제 예를 들어서 농협팀은 나는 충남으로 뛰겠다.

농협에 이제 감독이 또 농협, 농협 측에 구단에서 충남하고 조건을 맞춰서 충남에서는 예를 들면 1년에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충남 대표로 띄워주십시오 하면 농협이 서울에 중앙회가 서울에 있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서울에서 다 먹고 살지만 충분한 걸 뛰는 거죠.

체전만 체전만은 그런 식으로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살지만 등록할 때 선수 등록을 할 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요.

어 당신 메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 년에 1억을 줄테니 체전만은 부산으로 뛰어 달라 그러면 부산 협회로 등록을 합니다.

초에 등록할 때 그러면 이제 이 년 동안은 예를 들면 뭐 부산 협회로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지.. 이게 선수를 사고 파는 건데 결국은 체전 때문에..

○ 김봉수 회장

현재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기량이 출중한 선수 입장에서는 좋겠고.. 그렇잖아요.

하면 웬만하면 저기 많이, 많이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내가 성적이 났 수가 있지만 또 이제 또 역기능적인 입장에서는 시골에 지원이 안 되는 데서 선수가 이 선수가 저기인데 다른 데로 가도 우리는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잖



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회장 주원홍

그게 불합리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방에서 저 도 열심히 키웠는데 중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열심히 키웠는데 뭐 대학이나 실업 가면서 그 지역에 실업팀이 없어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서 또 성적내는 경우가 뭐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김봉수 회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는 거는

○ 김영철 선수위원장

제가 중간에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죄송한데 선생님 제가 이제 그 선수들하고 많은 생활을 같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선수들끼리 얘기는 우리가 어떤 특출한 사람을 뽑아왔고 세계대회에 내보냈고 그 사람이 유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회장님 말씀처럼 적을 둔데에서 대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아예 없는 대가 태반인 데도 많아요.

근데 저희 선수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을 한다.

재활 같은 스포츠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 선수들끼리도 집은 a라는 지역에 있지만 b 지역에 선수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 선수들끼리 의견을 해서 글로 가서 뛰게 해주고 있어요.

서로 그게 장애인 스포츠를 더 저변 확대를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스포츠만 생각을 하고 1인자가 돼야 된다 세계대회에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실적 실적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요 장애인 스포츠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행정하고 우리 아래서 우리가 하는 선수들끼리의 관계는 또 틀리거든요. 근데 회장님 말씀처럼 적을 둔 대에서만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17개 시도 협회에서 못 나가는 데 태반이에요.

○ 김봉수 회장

아니 이제 그런 장애인 특성 때문에 운영이 되니까는 일부 이해가 가요.

나 이해가 가는데 저희 지역에서 선수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와서 같이 운

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깊은 내용을 제가 개인적인 또 저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않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데, 선수 하나가 다른 타 지역으로 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견 아닌데 라는 그런 그리고 큰 광의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네요.

실업팀이나 이런 게 이해가 가는데 그 선수 하나만 놓고 내가 조금 더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저 선수들이 많이 활성화된 기회라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철 선수위원장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그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 설명드리면 체전 참가 선수 등록지 요 부분 규정은 경기 단체에서 함부로 이렇게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장애인체육회나 경기단체 의견을 들어서 규정은 개정은 할 수는 있는데요.

체전 선수 등록지에 관해서 주소지로 가자 아니면 팀 등록 주소지 양쪽으로 다 풀자 이런 공청회를 한 지가 지금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서로 입장별로 공청회를 진행을 해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주소지 팀 등록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전국장애인체육회를 개최하는 시도가 지방일 경우 선수를 우수한 선수가 이제 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을 좀 사와야 개최하는 시도는 또 이제 성적이 나고 또 그 개최 지도의 가산점을 받고 또 체전을 그렇게 유스 선수를 사오면서 또 그 좀 쳐져 있는 시도 지부의 그 선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시도 장애인 체육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원하고 또 경제단체에서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또 그냥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요.

관련 규정은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수 회장

선수들이 얘기 여론을 들어보니까 서울 경기 대구 일부 광주 기타 몇 군데 이거 저는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하자 는데 아이 그냥 대

전표에서 다 결정돼요 그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하고 이제 저희 울산에서 동메달 2개 어떻게 해가지고 해왔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사기 문제도 있고 지방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 회장 주원홍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제 지방에서 또 회장님들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키우셔가지고 참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대회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현실이 그렇고 이게 이제 저희 장애인테니스협회뿐이 아니고 비장애인 쪽도 다 똑같은 지금 정관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팀으로도 하고 개인들로도 팀 등록을 옮겨 다니면서 지금 체전에 이제 팔려 다닌다고 그러는데, 많은 선수들이 돈을 받고 체전 시도에 이제 팔려 다니는 그런 형국이라서 좀 안타깝게 합니다.

길러논 사람이 이제 대우 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잘 사오는 사람이 이제 성적을 내고 그 시도나 그런 데서 예산도 따고 또 감독 목숨도 부지하고 이 운동장에 열심히 나가는 감독보다는 선수를 잘 사온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 되는 현실이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김봉수 회장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테니스의 현실이, 현실이군요.

○ 회장 주원홍

테니스뿐이 아니고요 모든 모든 종목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육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메달 따는 선수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금액이 높아지고 그 선수는 철새처럼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문경로 회장

회장님. 아까 그 선수가 딱 대진표 보면 안 되는 게 남자들은 경기도 대구 걸리면 그냥 1회전 탈락, 여자 인천 걸리면 1회전 탈락, 딱 나와요.

○ 회장 주원홍

실업팀이 있는 데가 이 토토하고 달성군청이거든요.

그 팀들이 선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월급을 주는 팀이 있으니까 훈련 여건도 좋고..

○ 김봉수 회장

그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충북이나 대전..

○ 문경로 회장

거기는 이제 재미나는 거죠.

○ 김봉수 회장

그렇게 막 해면은 어떻게 이제 그것도 동메달에서 최종합 동메달이더구먼  
내가 그런데, 그런데 선수 하나가 우리 전라북도예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뭐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한다니까 저희는...

○ 문경로 회장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회장님.

○ 김봉수 회장

근데 그 선수한테 일절 표현을 안했어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 이제 그 선수를 또 타 시도에 안 뺏기려면 더 지  
원을 하고 해야 할 겁니다.

장애인테니스협회 지부 말고 이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도 그렇게 해서 지  
원을 할 겁니다.

○ 회장 주원홍

폐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안건 심의 안건 다 의결되었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준비된 안건 심의 기타 토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식사하시면  
서 기타 토의를 다시 하시고요 오늘 정기대의원 총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